

Effect of Parental Autonomy Support on Youth Cooperation: Verification on Mediation Effects of Euphoria and Leisure Time

Kim, Tae Keun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child & youth education, Sungsan Hyo University

Background: The cooperative competence is very dampened as ‘contact’ was converted into ‘non-contact’ due to COVID-19. Poorly prepared cooperation is likely to cause social problems, when the contact era resumes after the end of COVID-19. It is, therefore, important to examine factors influencing the cooperation and the causal relationship among them.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mediation effects of self-esteem and leisure time on the effect of the parental autonomy support on the youth cooperation.

Methodology/Approach: To this end, it used the 3rd data from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 conducted by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The 3rd data were most recently published in Dec., 2021, after the survey began to be conducted in 2020. It analyzed the data of a total of 2,411 subjects.

Result/Conclusion: First, the parental autonomy support has a positive effect on cooperation, euphoria and leisure time, and both euphoria and leisure time have positive effects on cooperation. Second, euphoria and leisure time have partial mediating effects on the effect of the parental autonomy support on the cooperation. Third, euphoria (.047) and leisure time (.002) have indirect effects on the effect of the parental autonomy support on the cooperation.

Suggestion: It is thought to be necessary to draw up measures for the parental autonomy support, euphoria and leisure time to have positive effects on the cooperation, when ‘non-contact’ is converted to ‘contact’ after COVID-19.

Keywords: parental parenting attitude, parental autonomy support, cooperation, leisure time, euphoria

Corresponding Author: Kim, Tae Keun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child & youth education, Sungsan Hyo University

543, Seokjeong-ro, Namdong-gu, Incheon, 21503, Republic of Korea

ORCID: <https://orcid.org/0000-0002-7637-2981>

Email: youth1@paran.com

Received: December. 15. 2022 Revised: December. 27. 2022 Accepted: December. 27. 2022 Publication: December. 31. 2022

부모의 자율성지지가 청소년의 협동심에 미치는 영향: 행복감, 여가시간 매개효과 검증

김태균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아동청소년교육학과 부교수

배경: 코로나19로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협동심 역량이 매우 약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대면화 시대가 되었을 때 협동심에 관한 준비가 미흡하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협동심에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이들의 인과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목적: 본 연구는 부모의 자율성지지가 협동심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과 여가시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있다. 방법론/접근: 이러한 목적을 밝히기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2018아동청소년패널 데이터」의 3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3차년도 데이터는 2020년도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 2021년 12월에 공개된 데이터로 공개된 데이터중에서 가장 최근 데이터이다. 총 2,411명의 데이터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결과/결론: 첫째, 부모양육의 자율성 지지는 협동심, 행복감, 여가시간에 정적인 영향을 각각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행복감이 협동심에 여가시간이 협동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의 자율성지지가 협동심에 영향을 미치는데 행복감과 여가시간은 부분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부모의 자율성지지가 협동심에 영향을 미치는 데 행복감의 간접효과는 .047, 여가시간의 간접효과는 .002로 나타났다.

시사점: 코로나19이후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전환시 부모의 자율성지지와 행복감, 여가시간을 높여서 협동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자율성지지, 협동심, 행복감, 여가시간, 청소년활동

교신저자: 김태균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아동청소년교육학과, 부교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 543

ORCID: <https://orcid.org/0000-0002-7637-2981>

Email: youth1@paran.com

투고일: 2022. 12. 15. **심사일:** 2022. 12. 27. **게제확정일:** 2022. 12. 27. **발행일:** 2022. 12. 31.

I. 서 론

협력심은 AI시대에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인재상이다. 개인중심, 자동화 사회로 넘어가면서 사람과 사람과의 협력심이 부족한 시대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현청[4]은 4차 산업시대에 적합한 인재상은 AI와는 다른 도덕성, 인내심, 감수성, 협동심, 문제해결능력, 호기심, 반성하는 사고 등이고, 이러한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 역점을 두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에서도 협력적 문제해결력 결과를 조사, 분석, 발표를 2015년부터 평가영역으로 추가하여 분석, 발표하고 있다. 한국의 협력적 문제해결력 평가 결과 참여한 52개국 중 한국의 학생들은 평균 538점을 얻어 OECD 참여국 중 2~5위로 상위수준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참여국을 비교해도 3~7위로 최상위 수준의 성취를 보이고 있었다[8].

국제사회 및 미래사회의 청소년의 협력심에 관심이 증가되면서 협력심에 미치는 요인에 대해 관심이 증가되고 있고, 최근들어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협력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는 부모관련, 또래관련, 자아 및 심리관련 요인 등이 협력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부모관련 요인으로는 크게 부모 그릿[6], 부모양육태도[10, 11, 25], 부모의 지지적 양육행동[14, 23], 긍정적 양육태도[17, 10, 21] 등의 요인이 협력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또래관련 요인으로는 또래관계[10, 14]이다. 자아 및 심리관련 요인으로는 우울[14], 자아존중감[10, 25], 자신감[7], 청소년활동[7, 16, 13, 19] 등의 요인이 협력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협동심에 미치는 요인들의 연구는 최근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의 선행연구들에서 몇 가지 한계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는 협동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일반화 시키기 위한 반복 검증이라는 측면에서 물리적으로 연구 편수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 사회과학연구는 반복적인 결과 도출을 통해서 일반화 검증을 실시한다. 하지만, 협동심에 관한 연구가 최근에 주목받기 시작했고, 연구 결과물 또는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화라는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 결과물을 통해 일반화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주장할 수 있다.

둘째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협동심에 직접 또는 간접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추가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동일한 데이터를 사용하였지만, 요인에 따라 부모의 양육태도가 협동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간접적인 영향만이 존재한다는 연구도 있어 이러한 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연구들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상의 한계점들을 극복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자율성 지지의 양육태도가 협동심에 미치는 영향에서 행복감, 여가시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주요변수들의 속성간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협동심에 가장 비중이 높은 요인으로는 부모의 양육태도이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지지적, 긍정적, 자율적지지 등과 같이 세분화 된 부모의 양육태도로 접근하고 있는데,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협동심과 관련이 높은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결과도 영향을 미치는 혹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획일화되지 않은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부모양육태도와 협동심 간의 연구를 진행한 김도희[10]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부모양육태도, 또래관계, 자아존중감, 협동심 간의 관계를 밝히고 있는데 부모의 양육태도는 협동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부모의 자율성지지 양육태도로 세분화한 전란영[23]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부모의 자율성 지지와 협동심의 관계에서 부모의 자율성 지지는 협동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매개를 통해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로 세분화한 임양미[21]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협동역량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 하고 있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율성이 높은 지지의 경우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12, 22, 27]. 즉,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경우나 민주적인 경우 아동은 행복감과 만족감을 높은 수준으로 자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2, 27, 18, 9, 2, 3, 5, 문민정, 2009; 20].

부모의 양육태도가 협동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도 매개변수를 통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전란영[23]과 임양미[21]의 연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매개변수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고, 김도희[10]와 김연희, 정혜원[11]은 그 매개 요인으로 자아존중감임을 밝히고 있다. 이뿐 아니라 조영희와 백아룡[25]도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이 협동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협동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중에 주목할 것은 여가요인이다. 여가요인과 협동심의 직접적인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하지만 협동심과 같은 요인이 공동체의식, 사회성 등의 하위요인 또는 맥락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여가요인과 공동체의식, 사회성 등의 연구를 살펴봄으로 여가요인과 협동심 간의 인과적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여가와 사회성 간의 관계를 밝힌 전병관 외[24]는 여가경험으로서의 템플스테이 참여 전과 후에 사회성의 변화를 분석하였는데 여가경험 이전보다 이후가 사회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중학생의 여가경험과 사회성 발달 간의 연구인 심상신, 안재빈, 김량영[15]의 연구에서도 여가경험이 사회성, 책임성, 자율성, 정서성, 활동성, 사교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활동의 참여정도에 따라 공동체의식 함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박가나[13]와 사회참여활동이 공동체의식을 높인다는 유혜영[19]의 연구 등으로 살펴볼 때 협동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여가활동이나 여가 경험임을 확인할 수 있다. 고등학생들이 지각하는 자신감, 재미, 협동심이 신체활동과 좌식행동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에서도

재미와 협동심의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7]. 따라서 부모의 자율성지지가 협동심에 미치는 영향에서 행복감과 여가시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청소년의 협동심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 여가시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따라 연구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자율성 지지는 청소년의 협동심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부모의 자율성 지지는 청소년의 협동심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은 매개하는가?

셋째, 부모의 자율성 지지는 청소년의 협동심에 미치는 영향에서 여가시간은 매개하는가?

넷째, 부모의 자율성 지지는 청소년의 협동심에 미치는 영향에서 행복감과 여가시간의 매개 크기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 부모의 자율성지지가 협동심에 미치는 영향에서 행복감, 여가시간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사용된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2018아동청소년패널 데이터」의 3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3차년도 데이터는 2020년도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 2021년 12월에 공개된 데이터로 공개된 데이터중에서 가장 최근 데이터이다. 총 2,411명의 데이터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30]

2. 측정도구

가. 협동심

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협동심 문항은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내용은 ‘그룹활동을 할 때, 친구의 장점이나 능력을 적극적으로 알려준다’, ‘그룹활동을 할 때, 친구가 어려워하면 기꺼이 돕는다’, ‘그룹활동을 할 때, 친구들이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그룹활동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 ‘그룹에서 하고있는 활동이 의미있는 일이라는 것을 친구에게 이야기 한다’, ‘그룹활동을 할 때, 친구가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룹활동을 할 때, 나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 ‘그룹의 리더가 아니더라도 맡은 일보다 많은 일을 하여 그룹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내가 속한 그룹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위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다’, ‘그룹에서 발생한 문제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한다’, ‘그룹의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내용을 친구들과 공유한다’, ‘그룹에서 발생한 문제를 친구들과 자주 이야기 한다’, ‘그룹활동을 할 때, 중요한 사항이나 문제점이 생기면 친구들과 함께 해결한다’, ‘그룹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로 1점 전혀그렇지 않다에서 4점 매우그렇다로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협동심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협동심의 신뢰도분석 결과 .917로 나타났다.

나. 부모 양육태도-자율성지지

부모양육태도의 자율성지지 문항은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내용은 ‘부모님은 나를 믿어주신다’, ‘부모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 ‘부모님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하게 해주신다’, ‘부모님은 나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신다’의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 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율성지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844으로 나타났다.

다. 행복감

행복감은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신뢰도가 낮은 1개 문항을 제외하고 3개문항을 사용하였다. ‘전반적으로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전반적으로 아주 행복한 사람들이 있다. 나는’의 3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1: 매우 불만족’에서 ‘5: 매우 만족’으로 점수화 하였으면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800으로 나타났다.

라. 여가시간

여가시간은 ‘평일_독서 시간’, ‘주말_독서 시간’, ‘평일_운동 및 신체활동 시간’, ‘주말_운동 및 신체활동 시간’, ‘평일_스마트폰을 가지고 노는 시간’, ‘주말_스마트폰을 가지고 노는 시간’, ‘평일_컴퓨터를 가지고 노는 시간’, ‘주말_컴퓨터를 가지고 노는 시간’, ‘평일_TV를 시청하며 노는 시간’, ‘주말_TV를 시청하며 노는 시간’, ‘평일_이외에 친구들과 노는 시간’, ‘주말_이외에 친구들과 노는 시간’ 문항은 ‘1:전혀안함’에서 ‘7:4시간이상’으로 Likert 7점 척도로서 구성되어 있다. 총 12개 문항의 점수를 합산 후 평균값을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여가시간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603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23.0 프로그램과 Amo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유의수준은 각각 $p < .05$, $p < .01$, $p < .001$ 수준에서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으로는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 상관관계분석, 팬텀변수를 적용한 효과성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의 적합도는 X^2 , GFI, AGFI, NFI, CFI, TLI, RMSEA, RMR의 적합도 지수를 사용하였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위한 재표집화 반복 횟수는 2,000회로 지정하였으며, 신뢰구간 계산은 bias-corrected 방법을 선택하였고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였다. 매개요인의 개별 간접효과 검증을 위해 가상의 변수인 팬텀변수를 사용하여 각 매개변인을 통한 효과 추정과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Ⅲ. 분석결과

1. 측정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본 연구는 성태제의[29] 주장에 따르면 다변량 통계분석을 위해 측정도구의 양호도 분석을 확인하기 위해 정규분포(normality), 등분산성(homoscedasticity), 선형성(Linearity)과 잠재변수가 단일 차원의 속성을 측정 하였다. 이러한 가정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분석결과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 정규성 검증

정규성 검증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 질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각 변수의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여 정규성을 <표 III-1>과 같이 검증하였다. 일반적으로 왜도는 절대값 2 미만, 첨도는 절대값 3미만이면 정규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1].

나. 상관분석

부모의 자율지지, 협동심, 행복감, 여가시간 간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II-2>와 같다.

〈표 III-1〉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구문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통계량	표준 오차	통계량	표준 오차
부모양육_자율지지	2411	1.00	4.00	3.2911	.53452	-.496	.050	.661	.100
협동심	2411	1.07	4.00	2.9377	.47118	-.073	.050	.694	.100
행복감	2411	1.50	4.00	2.9188	.38009	.036	.050	.589	.100
여가시간	2411	1.17	6.33	3.1617	.65536	.330	.050	.34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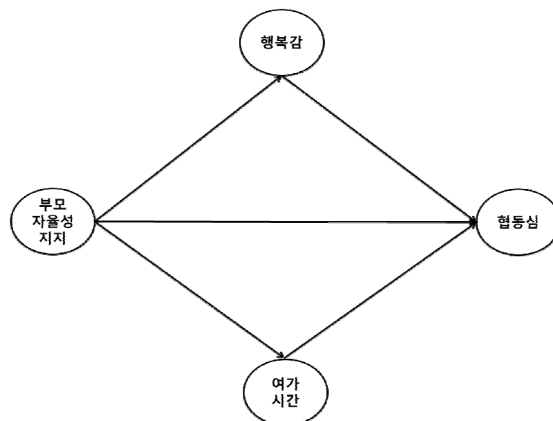
〈표 III-2〉 주요변수의 상관분석

	1	2	3	4
1. 부모양육_자율지지	1			
2. 협동심	.282**	1		
3. 행복감	.270**	.258**	1	
4. 여가시간	.048*	.054**	-.024	1

*p<.05, **p<.01, ***p<.001

2. 연구모형검증

연구모형의 가설을 검정하기 전 연구자가 설계한 모형이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적합도 지수를 통해 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림 III-1〉 연구모형

모형별 X^2 차이 검정과 적합도 지수들을 중심으로 모형의 타당성을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적합도 지수는 RMSEA, NFI, CFI, TLI 지수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X^2 는 3.660(d.f.=1), $p=.056$ 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X^2 은 표본의 크기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 X^2 보다 다른 적합도 지수를 통해서 타당성 충족 여부를 추가적으로 판단하였다. 적합도 수치는 RMSEA=.033, TLI=.967, NFI=.993, CFI=.995으로 모든 적합도 지수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 연구모형 비교 결과

구분	X^2 /d.f.	RMSEA	TLI	NFI	CFI
모형	3.660(1)	.033	.967	.993	.995
판단기준	2이하	.1이하	.9이상	.9이상	.9이상

* $p<.05$, ** $p<.01$, *** $p<.001$

3. 연구모형의 분석결과

가. 경로분석결과

부모의 자율성지지가 협동심에 미치는 영향에서 행복감, 여가시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표 III-4>와 같다. 부모양육의 자율성 지지는 협동심($B=.199$, $p=.001$)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에게 자율성을 지지하는 경우 자녀의 협동심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부모양육의 자율성 지지가 행복감($B=.192$, $p=.001$)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여가시간($B=.059$, $p=.05$)에 정(+)적인 영향을 각각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표 III-4〉 경로분석

경로	비표준화		표준화	C.R.	P
	Estimate	S.E.	Estimate		
행복감 ← 부모양육_자율지지	.192	.014	.270	13.762	***
여가시간 ← 부모양육_자율지지	.059	.025	.048	2.377	.017
협동심 ← 부모양육_자율지지	.199	.018	.226	11.370	***
협동심 ← 행복감	.246	.025	.198	9.986	***
협동심 ← 여가시간	.034	.014	.048	2.481	.013

* $p<.05$, ** $p<.01$, *** $p<.001$

과는 자녀에게 자율성을 지지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행복감과 여가시간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행복감이 협동심(B=.246, p=.001)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복한 청소년이 협동심에 정적인 영향을 미쳐 협동심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여가시간이 협동심(B=.034, p=.05)에 정(+)적인 영향을 각각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가시간이 높을수록 협동심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매개효과 분석 결과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서 나타난 매개효과를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검증하였다. 첫째는 부모의 양육태도인 자율성지지가 협동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행복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두 번째로는 부모의 양육태도인 자율성지지가 협동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여가시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1) 매개효과 검증

부모의 양육태도인 자율성지지가 협동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행복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표 III-5>와 같다. 부모의 자율성지지와 협동심은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자율성지지가 협동심에 영향을 미치는데 행복감과 여가시간은 부분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분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bootstrapping 방법을 적용하여 2,000번 반복적 표본 추출을 통해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검증하였다[31].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95% 신뢰구간에서 살펴본 결과 <표 III-5>와 같다. 부모의 자율성지지가 협동심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199로 나타났고, 협동심과 여가시간을 거쳐 간접 효과는 .049로 나타났다.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합친 총 효과는 .249로 나타났다. 이러한 매개효과는

<표 III-5> 전체 매개효과 분석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효과			95% bias-corrected		
			총 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	lower	upper	sig.
부모의 자율성지지	→ 행복감 → 여가시간	→ 협동심	.249	.199	.049	.038	.063	.001

*p<.05, **p<.01, ***p<.001

하한 값이 .038, 상한 값이 .063으로 하한 값과 상한 값 사이에 0이 존재하지 않아 간접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2) 간접효과의 비교

매개변수인 행복감과 여가시간 각각의 부분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팬텀변수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표 III-6>과 같다. 먼저 부모의 자율성지지가 협동심에 영향을 미치는 데 행복감의 부분매개효과를 살펴보면 행복감의 간접효과는 .047로 나타났다. 매개효과는 하한 값이 .036, 상한 값이 .060으로 하한 값과 상한 값 사이에 0이 존재하지 않아 간접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부모의 자율성지지가 협동심에 영향을 미치는 데 여가시간의 부분매개효과를 살펴보면 여가시간의 간접효과는 .002로 나타났다. 매개효과는 하한 값이 .000, 상한 값이 .005으로 하한 값과 상한 값 사이에 0이 존재하지 않아 간접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는 부모의 자율성지지가 협동심에 영향을 미치는데 행복감과 여가시간이 각각 부분매개하는데 여가시간보다 행복감이 간접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 전체 매개효과 분석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효과			95% bias-corrected		
			총 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	lower	upper	sig.
부모의 자율성지지	→ 행복감	→ 협동심	.047	.000	.047	.036	.060	.001
부모의 자율성지지	→ 여가시간	→ 협동심	.002	.000	.002	.000	.005	.029

*p<.05, **p<.01, ***p<.001

IV.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의 자율성지지가 청소년의 협동심에 미치는 영향에서 행복감, 여가시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밝히기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2018아동청소년패널 데이터」의 3차년도 데이터의 2,411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양육의 자율성 지지는 협동심, 행복감, 여가시

간에 정적인 영향을 각각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행복감이 협동심에 여가시간이 협동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 양육태도가 협동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김연희, 정혜원[11]의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자율성지지가 협동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손인봉과 최정아[14]의 연구결과와는 반대의 결과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이고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경우 행복감과 만족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김현정, 이태상[12]과 한영숙[27]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자율성지지, 행복감, 여가시간이 협동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둘째, 부모의 자율성지지가 협동심에 영향을 미치는데 행복감과 여가시간은 부분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모의 자율성지지가 협동심에 영향을 미치는데 행복감과 여가시간이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자율적 지지의 양육태도를 보이는 경우 행복감과 여가시간에 각각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는 협동심을 높일 수 있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즉, 부모의 자율성 지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김현정, 이태상[12]의 연구결과와 행복감이 협동심에 영향을 미치는다는 한종화[28]의 연구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율성지지가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천승현[26]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모의 양육태도가 협동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행복감이나 여가시간을 통한 간접효과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협동심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경로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셋째, 부모의 자율성지지가 협동심에 영향을 미치는 데 행복감의 간접효과는 .047, 여가시간의 간접효과는 .002로 나타나, 여가시간 보다 행복감의 간접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자율성지지 양육태도가 협동심에 직접적인 영향도 미치고, 행복감과 여가시간을 거친 간접효과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시간 보다는 행복감의 간접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협동심을 높이기 위해서 여가시간보다 행복감의 간접효과가 더 중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협동심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의 협동심을 높이기 위해서 부모의 자율성 지지의 양육태도를 갖도록 부모교육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부모교육의 참여율이나 기회가 낮다. 실제로 부모교육을 받아 본 부모의 비중이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부모 교육의 기회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즉, 청소년의 부모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시간, 문화 등을 고려한 맞춤형 부모교육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는 청소년의 협동심을 높이기 위해서 청소년의 행복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국 청소년의 행복도가 낮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8]. 여가시간보다 행복도가 협동심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행복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지체계, 자아, 친구관계 등으로 알려져 있다. 청소년의 행복도를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인 정책, 교육 등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청소년의 협동심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의 여가시간을 높일 수 있는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하루 24시간중에 학교, 학원 등의 물리적 시간의 한계로 여가시간이 부족하고, 코로나 19로 비대면 여가시간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를 갖게 한다. 여가시간의 비중이 낮은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학교 내에서의 진로활동, 체험활동, 문화활동 등을 통해 여가시간을 높을 수 있는 교육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의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더 다양화하고, 청소년들의 참여 비율을 높여 여가시간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협동심을 높이기 위해 부모의 자율성 지지, 행복감, 여가시간의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함의가 있다. 이러한 함의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는 종단적 연구가 아닌 횡단적 측면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한계를 밝혀둔다. 또한 청소년의 협동심, 부모의 자율성 지지, 행복감, 여가시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별, 나이, 부모 특성 등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음을 밝혀둔다.

참고문헌

1. Ahn, J. A., Lee, E. G., & Kim, J. S. (2021). Effects of positive parenting on happiness of children: Serial multiple mediation effects of self esteem, cooperation and peer relation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26(2), 73-94.
2. Harter, S. (1983). Developmental perspectives on the self-system. In P. H. Mussen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4th ed.). Vol.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pp. 275-385). New York: John wiley & Sons.
3. Jaffe, M. L. (1997). Self-concept, self-esteem, and gender identity. In *Understanding Parenting* (2nd ed.). Boston: Allyn & Bacon.
4. 이현청 (2017). 한국교회의 미래와 전망. *한국뇌과학연구원 브레인*, 62, 55-56. (Hyon Chong Lee. (2017). The Future and Prospects of Korean Education. *Korea Institute BRAIN Science*, 62, 55-56.)
5. Shaffer, D. R. (1994). *Soci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3rd Ed.). California: Books/ Cole Publishing Company.
6. 강보은 (2021). 부모의 그릇이 자녀의 협동심에 미치는 영향. *교육혁신연구*, 31(3), 409-435. <https://doi.org/10.21024/pnuedi.31.3.202109.409>. (Kang, Bo-Eun. (2021)). Grit and Cooperative Competence: The Mediating Impact of Children's Grit on the Association between Parent's Grit and Children's Cooperative Competence.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31(3), 409-435.)
7. 광설영, 이지향, 박생렬 (2017). 고등학생들이 지각하는 자신감, 재미, 협동심의 잠재프로파일 집단이 신체활동과 좌식행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력 검증. *한국사회체육학회지*, 70, 457-464. <https://doi.org/10.51979/KSSLS.2017.11.70.457>. (Guo, Xue-Ying, Lee, Ji-Hang, Park, Saeng-Ryeol. (2017). Examining the Relations of Latent Classes of Confidence, Enjoyment and Cooperation on Physical Activity and Sedentary Behavior in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70, 457-464.)
8. 구자욱, 조성민, 이소연, 박혜영, 구남욱. (2017). OECD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 PISA 2015 결과 심층 분석 보고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서. <https://doi.org/10.23000/TRKO201900002363>. (Jaok Ku., Seongmin Cho., Soyeon Lee., Hye-young Park & Nam Wook Ku. (2017). *OECD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s Assessment: An In-Depth Analysis of PISA 2015 Results*. Korea Institute Of Curriculum & Evaluation.)
9. 권미나, 이진숙 (2020).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과 그릇, 학업열의, 스마트폰 의존성의 구조적 관계 분석 및 성별에 따른 다중집단 분석. *인간발달연구*, 27(2),

- 29–44. <http://dx.doi.org/10.15284/kjhd.2020.27.2.29>. (Kw,On, Mina & Lee, jinsuk. (2020). A multi-group analysis of smartphone dependency based on a structural relations analysis and gender in terms of negative parenting behaviors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s, grit, and academic enthusiasm. *The Korean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27(2), 29–44.).
10. 김도희 (2020)).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또래관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협동심의 직렬다중매개효과. *디지털융복합연구*, 18(5), 485–495.
<https://doi.org/10.14400/JDC.2020.18.5.485>. (Do-Hee Kim. (2020)). Serial Multipl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Cooper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rental Attitudes and Peer Relationships in Childre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8(5), 485-495.))
11. 김연희, 정혜원 (2021)).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협동심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22), 957–967. <https://doi.org/10.22251/jlcci.2021.21.22.957>. (Kim, Yeonhee1 & Chung, Hyewon. (2021). The effect of parenting attitude on cooperation of adolescents: 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1(22), 957-967.).
12. 김현정, 이태상 (2019).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행복감 관계에서 아동의 자존감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22), 723–742.
<http://dx.doi.org/10.22251/jlcci.2019.19.22.723>. (Kim, Hyeon Jeong & Lee, Tae Sang. (2019). The mediating effects of children's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s parenting behavior and children's happines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22), 723-742.)).
13. 박가나 (2009). 청소년 참여활동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학연구*, 16(10), 273–306. (Ga Na Park. (2009). The Effect of Youth participation on a Sense of Communit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6(10), 273-306.)).
14. 손인봉, 최정아 (2021). 지지적 양육행동, 우울, 협동심, 또래관계 간의 구조적 관계. *한국융합과학회지*, 10(5), 332–348. <https://doi.org/10.24826/KSCS.10.5.21>. (Son, In-Bong & Choi, Jung-Ah. (2021). Structural Model Analysis of Associations between Supportive Parenting, Depression, Cooperativeness, and Peer Relationships in Adolescence. *Korean Journal of Convergence Science*, 10(5), 332-348.).
15. 심상신, 안재빈, 김량영 (2011). 중학생의 여가경험이 사회성 발달 및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20(5), 111-127. (Shim, Sang-Shin, Ahn, Jae-Bin, Kim, Yang Young. (2011). Influence of Leisure Experiences on Development of Sociality and Adaption of School Life of Middle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Sports Science*, 20(5), 111-127.).
16. 심희영 (2008). 청소년의 여가활동이 사회성 발달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 석사논문. (Sim, Hee-Young. (2008). The Impact of Youth Leisure Activities on Sociality Development and Self-Respect. ,Daegu University.).
17. 안지영, 이은경, 김지신 (2021).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협동심, 또래관계의 순차적 다중매개효과. *한국가족복지학*, 26(2), 73-94. <https://doi.org/10.13049/kfwa.2021.26.2.4>. (Jee-Young Ahn., Eun Gyoung Lee & Ji-Shin Kim. Effects of Positive Parenting on Happiness of Children Serial Multiple Mediation Effects of Self Esteem, Cooperation and Peer Relation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26(2), 73-94.).
 18. 유민상 (2016).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생태체계 이론의 적용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Yoo, Min Sang. (2016). Factors associated with children's subjective well-be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19. 유혜영 (2014). 청소년의 사회참여 활동이 정치참여 의사에 미치는 경로 - 사회적 신뢰, 공동체 의식, 자아 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46(3), 141-166. (Hyeyoung Yoo. (2014). A Structural Analysis of Youth Participation on the Intention of Future Political Participation: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trust, sense of community, and self-efficacy. *Theory and Research in Citizenship Education*, 46(3), 141-166.).
 20. 이정미, 이양희 (2007).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간의 갈등, 어머니의 양육행동, 사회적 지지 및 안녕감 간의 구조적 관계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0(4), 33-58. (Jeong-Mi Lee & Yang-Hee Lee. (2007). The effects of perceived parental conflict, maternal behavior, and social support on children's subjective well-being: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0(4), 33-58.).
 21. 임양미 (2021). 결혼이주여성의 양육효능감이 중학생 자녀의 진로장벽인식에 미치는 영향: 진로지원행동과 성취동기의 매개효과 및 성별비교. *한국생활과학회지*, 30(1), 79-94. <http://dx.doi.org/10.5934/kjhe.2021.30.1.79>. (Lim, Yangmi. (2021). Relationships Between Married Immigrant Women's Parenting Efficacy and Middle School Students' Perceived Career Barriers: Mediating Roles of Career-Related Support and Achievement Motivation and Children's Sex Difference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30(1), 79-94.).
 22. 임혜림, 김서현, 정익중 (2018). 가정 및 학교 내 대인관계와 아동의 행복감 간 구조적 관계. *한국사회복지학*, 70(2), 145-170. (Yim, Hyerim, Kim, Seohyun, Chung, Ick-Joong. (2018).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Family?School and Children's Happiness: Focused on Differences by the Level of School.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70(2), 145-170.).
 23. 전란영 (2020). 부모의 자율성 지지와 구조제공이 아동의 그림을 매개로 아동의 협동심에 미

- 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1), 117-139.
<https://doi.org/10.22251/jlcci.2020.20.11.117>. (Jeon Ran Yeong. (2020). The effects of parental autonomy support and structure on child's cooperation with child's grit as a mediator.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1), 117-139.)).
24. 전병관, 한혜원, 백승희, 최승욱 (2013). 여가경험으로서의 템플스테이 참여가 초·중등학생의 자아존중감, 사회성 및 정서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22(6), 267-277. (Jun, Byung-Kwan., Han, Haewon., Seunghui Baek & SEUNG WOOK CHOI. (2013). The Influence of Participation of Temple Stay on Self-Esteem, Social Skills and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The Korea Journal of Sports Science*, 22(6), 267-277.).
25. 조영희, 백아롱 (2021). 중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협동심 간의 관계에서 부모 및 교사관계의 매개효과: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59(5), 185-213.
<http://dx.doi.org/10.30916/KERA.59.5.185>. (Younghee Cho & Ah-Rong Beik. (2021). The mediating effects of parental relationship and teacher relationship on middle school students' self-esteem and cooperation: Focusing on gender difference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59(5), 185-213.).
26. 천승현 (2010). 자율성지지 방식의 당위성 제시가 신체활동 무동기 상태 학생들의 확인규제와 의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21(3), 309~326. (Sung Hyeon Cheon. (2010). The Effects of Providing Rationales in Autonomy-supportive Ways upon the Identified Regulation and Intention of Amotivated Students toward Physical Activity. *Korean Journal of Sport Psychology*, 21(3), 309~326.).
27. 한영숙 (2020). 어머니와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과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 간의 종단적 관계: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과 또래관계의 역할. *아동학회지*, 41(3), 13-23. (Youngsook Han. (2020). Longitudinal Links Between Mothers' and Fathers' Warm Parenting and Children's Subjective Well-Being: The Roles of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and Peer Relationship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41(3), 13-23.).
28. 한종화 (2014). 유아교사의 자아존중감과 전문성 인식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18(4), 271-287. (Jong Hwa Han. (2014). The Impact of Self-Esteem and Professional Recognition on Early Childhood Teachers' Happiness.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18(4), 271-287.).
29. 성태제 (2008). *알기 쉬운 통계분석*. 서울: 학지사. (Seong, Taeje. (2008). *Easy-to-understand statistical analysis*. Seoul: Hakjisa.)
3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8).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데이터 유저가이드(1차-8차)*.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8). *Multicultural Youth Panel Survey Data User Guide(1st~8th)*.)

31.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oyle(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pp.56-75). Newbury Park, CA: Sage.